



■ KIA 일본 미야자키현 마무리 캠프

한기주, 내년에도 '소방수' 맡는다

조범현 감독 "150km 강속구...30세이브 기대"

"윤석민 회복 여부가 선발진 구성 큰 변수될 것"

'황금팔' 한기주(20·KIA·사진)가 내년 시즌에도 뿔뿔을 맡는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가을캠프를 지휘중인 조범현(49) KIA 감독은 "내년 시즌 팀 마무리는 한기주다. 선발 전환도 고려했으나 마무리로 적합한 투수"라며 일찌감치 소방수로 지목했다.

조 감독은 "선발진으로는 용병 1~2명을 고려하고 있고, 양현종, 문현정, 오준형 등 젊은 투수들의 선발 합류도 고민 중"이라며 "다만 양쪽 발목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은 윤석민의 회복여부가 내년 선발진 구성의 큰 변수"라고 덧붙였다.

조 감독은 또 "중간계투로는 심기불이 뛰어난 유동훈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훈련 초기인 만큼 내년 스프링 캠프 때 투수진 구성을 완성토록 하겠다. 하지만 마무리는 한기주 외에 모범 답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감독이 소방수로 낙점한 한기주는 최소 1~2이닝은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마음껏 뿌려대는 게 강점이다.

올 시즌엔 최고 시속 158km의 볼을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한기주의 강속구는 타자들이 알고도 치기 힘든 위

력적인 볼이다.

한기주는 올해 처음으로 풀타임 소방수로 활약, 2승3패25세이브, 방어율 2.43를 기록했다. KIA의 전신인 해태를 포함, 지난 99년 입찰용 이후 20세이브 이상은 한기주가 유일하다.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선동열 삼성 감독도 최근 오기나와 진지훈련서 "나도 한기주를 데리고 야구하고 싶다. 하체이동만 좀 더 보강하면 정말 치기 힘든 볼을 던질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로 던지는 탓에 구종이 단조로운 게 한기주의 단점이다.

여기에 선발투수로 나설 경우 회가 거듭될 수록 힘이 떨어지고, 상대 타자들에게 구종이 노출되는 약점을 안고 있다. 한기주가 마무리로 전환한 이유이기도 하다.

조 감독은 "(한)기주는 선발투수보다는 마무리의 재능이 탁월하다. 내년엔 팀 성적만 좋다면 30세이브 이상은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요즘 야구는 선발 못지 않게 마무리 투수의 중요성이 크다.



한기주가 버티고 있는 마무리는 8개 구단 중 KIA가 최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터치다운은 이렇게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와이드 리시버 산토니오 홀스(10번·오른쪽)가 19일 뉴저지주 이스터 러더퍼드 자이언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제츠와 미국프로풋볼(NFL) 정규시즌 11주차 방문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하고 있다. 같은팀 하인츠 워드는 47야드를 전진하는 데 그쳤고, 피츠버그는 16-19로 패했다.

/연합뉴스

이규혁 1,000m 동메달

빙속 월드컵 2차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말썽' 이규혁(29·서울시청)이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 1,0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규혁은 19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오벌에서 치러진 대회 마지막 날 남자 1,0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1분07초40으로 '흑색탄환' 사니 데이비스(미국)와 동률을 기록,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단거리 전문' 이강석(의정부시청)은 1분08초21로 9위에 머물렀고, 이기호(서울시청·1분08초36)와 문준(성남시청·1분08초56)은 각각 12위와 15위로 처졌다.

캐나다의 데니 모리스는 1분07초25로 결승선을 통과, 제레미 워더스푼(캐나다·1분07초31)을 꺾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또 여자 1,000m 디비전B(2부리그)에 나선 이상화(한국체대·1분17초21)와 이보라(단국대·1분17초36)는 나란히 8, 9위를 차지했다.

'테니스 황제' 페더러

상금 1천만달러

20일 피트 샘프라스와 현대카드 슈퍼매치를 앞두고 19일 방한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가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상금 1천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페더러는 18일 막을 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왕중왕전 마스터스 컵에서 우승, 상금 120만달러를 추가하며 올해에만 86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여기에 총상금 245만달러 이상 특급 규모 대회 마스터스시리즈가 주는 ATP 마스터스시리즈 보너스 150만달러를 보태 1천10만달러를 기록했다.

ATP 마스터스시리즈 보너스는 올해 최종 랭킹 1~4위까지 각각 150만달러, 75만달러, 50만달러, 25만달러를 지급한다. 페더러는 4년 연속 1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일(화)

▲07/08 NFL(테네시·덴버)(10:3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SK·모비스)(18:50·SBS스포츠·Xports)

▲2007 배구월드컵(남자부) 1라운드(러시아·튀니지)(13:30·KBS N SPORTS)

▲대한민국·아르헨티나(15:00·KBS N SPORTS) <일본·호주>(18:00·KBS N SPORTS)

김경아-박미영 '정상 스매싱'

스웨덴 탁구 여자 복식

여자 탁구의 '수비 폼비' 김경아(대한항공)·박미영(삼성생명) 조가 2007년 스웨덴 오픈 정상에 올랐다.

김경아-박미영 조는 19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복식 결승에서 일본의 후쿠오카 하루나-히라노 사야카 조에 폴세트 접전 끝에 4-3(8-11 7-11 11-5 11-9 11-5 8-11 11-8)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지난 6월 일본오픈과 지난 주 독일오픈에서 결승에 오르기도 잇따라 준우승에 그쳤던 김-박 조는 올해 오픈대회에서 첫 우승 감격을 맛봤다.

결승전에서 중국의 궈엔-카오젠 조를 4-0으로 완파하며 고비를 넘긴 김-박 조는 후쿠오카-히라노 조와 결승 대결에서 1, 2세트를 잃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악몽이 되살

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3세트 들어 수비형 선수 특유의 끈질긴 커트 수비로 상대 힘을 뺀 김경아와 박미영은 빠른 공격 전환으로 허를 찔러 세트를 만회했고 여세를 몰아 4, 5세트까지 가져와 세트스코어 3-2로 뒤집었다.

6세트를 아깝게 넘겨준 김-박 조는 최종 7세트에서도 완상적인 호흡으로 상대 공세를 차단해 마침내 최강의 폼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은 중국의 '집안 잔치'였다.

남자 세계랭킹 1위 왕하오는 단식 결승에서 독일오픈 챔피언 마룡의 상상을 4-1로 잠재우고 우승컵을 차지한 뒤 마룡과 호흡을 맞춘 복식에서도 우승해 대회 2관왕이 됐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중국의 리샤오샤가 동료 궈엔을 4-0으로 물리치고 우승 기쁨을 누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찬호 "꿈보다는 정의 위해 올림픽 선택"

LA다저스행 불투명

박찬호(34·LA 다저스)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LA 다저스 입단보다 야구 국가대표팀에 참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호는 1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의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올림픽 예선 참가와 다저스와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끝내 대표팀 잔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올 시즌 후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야 하는가. 심지어 이대로 은퇴의 길도 생각을 해야 하는가. 고민을 했다. 다행히 내년 스프링캠프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다저스타운에서 하게 됐다"며 계약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뒤늦게 올림픽 예선전에 나가는 걸 알게 된 다저스는 올림픽 예선 출전이나 아니면 바로 지금 계약을 하

는 것이냐는 힘겨운 선택의 기로를 주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론은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이다. 다저스와 계약을 해 건강할 몸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목표와 꿈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국가를 위해 좋은 활약으로 꼭 올림픽에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독님과 선수배, 동료 선수들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게 자신을 괴롭혔다"고 그동안의 심정을 밝혔다.

박찬호가 올림픽 예선전 출전을 강행함에 따라 다저스와의 최종 계약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편 박찬호는 지난 달 8일 다저스와 기본 연봉 50만달러에 메이저리그 보장이 없는 1년 계약에 동의하고 내년 스프링캠프에 초청선수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옛날손짜장 대인동 롯데마트후문골목 손짜장,간짜장,삼선짜장,탕수육 사촌탕수육,산속배달 ☎(062)232-0036	제일꽃유용 북구 우산동 441번지 화환,부케,꽃바구니,라임 난 전문 대표 심양길 ☎(062)511-9196	쉬(서)野(야)낙지마을 운암동 동운고기리 새마을금고옆 낙지,비빔밥,낙지전골,낙지찜, 연포탕,낙지홍길,김치찌개,김치찌개 ☎(062)522-9979	CNS휘트니스클럽 월계동 891-5번지LCE타워1층 실내골프장,헬스클럽,스키클럽 에어로빅,요가 회원수시모집 ☎(062)973-3339	광주실내수영장 화정3동 영주체육관내 2007년 11월 19일(화) 회원수시모집 대표 송명철 ☎(062)380-6801	창평국밥 화정4동사무소앞 영주역지골목 콩나물국밥,낙지국밥, 대표 박양심 ☎(062)371-2240	
부촌 목포시 상동 글로이빌딩1층 비자리회무침, 낙지비빔밥, 연포탕 ☎(061)287-7705	킹크랩할어회전문 목포시 상동 1152-8번지 골든타워1층 킹크랩 할어 전문점 실장 윤봉화 ☎(061)283-8292	국토환경시스템 동구 산수동 계림나무전거리 인력강입,워렌리용역,사무실,업소청소 입주 거주청소, 건물중공 청소 ☎(062)227-5557	비바생선집 쌍촌동 상무2동사무소옆 주방설거지, 출생식 수시모집 단체예약손님환영 ☎(062)385-9293	총장모임 월계동 모아미래도@정문앞 매일국수,마르모일,비빔모일 ☎(062)971-6444	코사마트 주월동 라인가든@건너 각종 생활용품 전문점 대표 이금자 ☎(062)574-4583	봉선2동 풍물교실 봉선2동사무소지하 풍물교실 기초반 회원수시모집 <월,수,금 오전10시~11시> ☎(016)9885-1922	동의보감 일곡지구광운행원 신희안면공원옆 보양음식전문점 <모든 메뉴는 포장됩니다> ☎(062)572-7372
해촌 목포시 상동 유현빌딩1층 낙지, 비자리전문 최고의 맛, 최선의 서비스 모시겠습니다 ☎(061)283-7011	장성봉무관 장성군-읍 영천리 장성공원옆 봉무관(인성교육을 통한 전인교육) 장성 봉무관이 함께 합니다 ☎(061)392-5695	신광당안경원 서구문화센터 골목@와 남양@사이 각종 인공렌즈,렌즈 전문점 ☎(062)654-4958	맥주세상 화정동 영주사거리 먹자골목 레스토호프 대형홀인비 대표 최승호 ☎(062)371-2990	향미집 산정동 하남공정문앞면 먹자골목 장아, 현미요, 생탕, 알탕, 낙지볶음전문 대표 정영애 ☎(062)962-4208	아주커치(주월점) 주월동 행복비크건너 각종 차,인쇄배달 대표 김윤귀 ☎(062)673-8892	상무보양탕 쌍촌동 구 상무시장앞면 수육,전골,다리,보양탕,추어탕,토끼탕전문 단체예약손님환영 ☎(062)371-7007	인성상사 일곡동 일곡마을내 인성화코스펠트 광주 전남북대리점 대표 장종식 ☎(062)571-2326
(주)황금DIP 목포시 상동 기동영일빌딩3층 목포 달리도 성개발전문 펜션,전원주택 상담환영 ☎(016)628-5524	양자감 장성군-읍 영천리 면류,발류,인주류,겨울매(떡국,민두국) 최고의 맛, 최선의 서비스 손속배달 ☎(061)394-9774	e-쁘지오문홍점 문흥동 라인차상가 국민은행2층 여성전문 셀프다이어트 전문점 대표 양향숙 ☎(062)264-8822	셀자동차외형복원 양산동 양산재수지엄 큰도로변 글라스코팅,광택,화장복합성 30% 할인 ☎(062)365-7080	진가네 중흥동 280-33번지 생삼계,삼계탕,원정짜개,한식전문 대표 진미숙 ☎(062)524-5454	광주봉담 주월동 현대1차@인구 후라이드,양념채킨,반반채킨,단체주문환영 아침에와 (유치원, 학교간식) ☎(062)653-4369	HERBALIFE(허벌라이프) 쌍촌동 2동사무소옆@봉선2동@인구사이 제충비만관리,심혈관,피부관리회원수시모집 대표 윤석란 ☎(010)4614-7813	유성조경자재·철물백화점 각동농산물시장앞면@이평면@거리남편 조경차료,정원제,녹화제,아프리카,코이로프 모양원,농경조경,수목관리,토양개선제전문점 ☎(062)261-0989